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16. 버가모 교회

2013. 04. 2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보낸 편지를 읽고 공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바르게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12~17]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 목사님,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버가모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답: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공부하는 시간이니 당연히 버가모 도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요.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베르가마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과 함께 BC 133년에 로마에 유증(遺贈)한 마지막 왕 앗탈루스 III세 이후, 2세기 동안 로마의 아시아 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BC 3세기 초 이래로 버가모는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지적 생활의 중심부가 되어 왔습니다. 비록 요한 시대에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적인 도시로서 그 지위를 대신하기 시작했는지라도 버가모는 그 이전의 중요성을 대부분 계속 간직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이 영예를 얻고자 오랫동안 다투었다고 합니다.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으며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에스쿨라피우스”(Asclepius)라 불리는 뱀 신과 주신인 “제우스”(Zeus),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Dionysos)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였습니다. 이 버가모 시에 어떤 경로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계시록 외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요.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지만, “성채” 혹은 “높이 들린”이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시가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

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름은 버가모 시대 동안 교회의 특징적인 경험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교회는 높이 들리게 되었지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핍박받는 종파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전을 받지 않는 인기와 세력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국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된 것이지요.

2.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핍박과 환난기를 지나서 국가로부터 우대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이군요.(그렇지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름이 아주 그 시대를 적절하게 나타내는데, 그 도시가 높은 언덕에 있고 견고한 성채처럼 건설된 것을 표상으로 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상징하게 된 것이군요?

답: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당시 버가모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도시에 서서히 위상을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갔는지도 모르지요. 편지 내용을 보면 안디바가 순교한 것을 보면 결코 평탄한 상태는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꽤 지도자급에 있는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숭배를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행음도 들어온 것이지요.(14절) 결국 교회가 국가와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버가모 시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으니까, 특히 제우스와 에스클라피우스를 숭배하는데 교회가 협력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지요. 일제 때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버가모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네요.

3. 당시 버가모 교회의 일반적인 사정을 그렇다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어떤 경로로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되었습니까?

답: 지난 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사실을 잠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쟁을 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지요. 교회 역사의 비조라고 칭함을 받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 꿈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사에도 나오지만 그 근거가 유스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친구가 되었고, 그의 전기를 썼으면 교회사도 썼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쓴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 후 모든 교회사 저자들은 이것을 참고하게 되었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틴 군대와 그와 싸우는 막센티우스 군대가 로마에서 동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밀비우스 다리가 있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콘스탄틴은 자기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를 눈앞에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계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드린 다음날이겠지요, 한 낮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에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전설은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요. 황제는 그렇게 하여 승리했는데, 락탄티우스는 그때 라바룸을 방패에 새겨서 싸우라는 환상을 봤다고도 합니다. 락탄티우스도 기독교 교부인데 아마 콘스탄틴의 아들 크리스푸스의 가정교사였습니다. 라바룸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표상으로 한 것처럼 영어로 표시하면 X에 P를 겹친 모양인데, 이것은 헬라어 키와 로를 겹친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와 둘째 글자를 겹쳐놓은 모양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다 기독교 교부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콘스탄틴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사실에서 그런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수긍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기독교가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높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 4. 콘스탄틴은 왜 그런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까?

답: 예, 질문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서머나 시대를 말하면서 약간 언급했지만,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로마를 동서로 나누고 동서로마에 각각 정 황제 부 황제 제도를 만들었는데, 디오클레시안은 동로마의 정 황제였고, 자기 사위 갈레리우스를 부황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로마에는 막시미아누스가 정황제로 있었고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가 부황제로 있었는데, 디오클레시안이 305년에 자진 퇴위하자 막시미아누스도 마지못해 퇴위를 하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가 정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306년에 죽자 그 아들이 콘스탄틴이 에보라쿰에서 황제로 즉위를 했거든요. 그러자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도 로마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마에는 황제가 두 사람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그 황제의 위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의 도움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해에 이 두 황제가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의 원문은 없고 현재 칙령 문서 자체는 내려오지 않으며, 금석문 형태로도 남아있는 것이 없답니다. 1차 사료로는 유일하게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에, 동방황제 리키니우스가 휘하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의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좀 지루할는지 모르지만 애청자들이나 교인들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터 우리(콘스탄틴과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대해서도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데 필요한 제의(祭儀)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목인 상태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제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의논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만난 이 기회에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은 기독교도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 지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

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라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AU1057)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이상이 밀라노 칙령의 전문입니다. 완전히 종교자유를 허락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하여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되었지요. 버가모 교회도 초기에는 핍박을 받고 순교자도 나오고 했지만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주면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자 교회는 세속적 번영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 버가모 시가 높은 언덕에 자리한 것을 표상으로 "성채"나 또는 "높이 들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버가모 시대의 교회 상태를 표상하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답: 예, 버가모시는 근방을 흐르는 카이쿠스 강의 계곡으로부터 1000피트나 높은 원추형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높이 들렸더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1000피트이면 330 미터쯤 되는 언덕입니다. 높지요. 그런 언덕에 240 미터 높이의 아테네 신전을 건설했다고 하네요. 멀리서 보면 그 신전이 엄청 높이 보였겠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웠겠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온갖 우상들의 집합 처 같은 도시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곳을 안다고 하셨지요.

6.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답: 예, 아주 적절한 모습이지요. 이 칭호도 1:16에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지요. 1:16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그 칼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졌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입에 있든지 손에 있든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칼은 헬라어 "롬파이아 디스토모스"인데 문자적으로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지요. 혀모양으로 생긴 칼이라고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두 손으로 다루는 크고 무거운 칼이었다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입구에 놓아 둔 "검"(창3:24)과 골리앗의 칼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삼상17:51) 이 흥미로운 비유적 표현은 사람의 칼, 즉 사람의 입이 칼날이 되어 그의 원수들을 먹어치운다는 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계2:12, 16; 19:15, 21에서 그 상징을 반복하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권위, 특별히 심판을 집행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그 같이 날이 서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두 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 날카로움과 심판 행위의 효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지요. 살후2:8에는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4:12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지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단호히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7. 그런데 목사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아주 불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지요. 그것이 13절인데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 많이 시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도자인 안디바는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데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1)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 신전 중 특별히 제우스 제단을 가리킨다는 설명. (2) 버가모 도시 자체가 언덕처럼 생겨서 평원 위로 솟아오른 모습이 하나의 제단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 (3)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셋째 설명이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버가모는 살아 있는 황제 숭배의 첫 장소가 됨으로써 BC 25년에 두드러지게 되었지요. 그 도시는 신전을 지어서, 여신 로마, 곧 로마제국의 영(靈)의 화신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우구스도 황제 숭배를 위한 예배에 바쳤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미시안 황제(AD 81~96)를 숭배하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요. 그 황제는 “주와 신”으로서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버가모는 이렇게 소아시아의 이방종교 중심지였으며 헬레니즘 사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장소라는 지적은 실상을 잘 드러낸 표현이지요. 그리고 역사적 버가모 교회 시대는 대략 콘스탄틴이 교회의 신앙을 허락하게 된 AD 313년에 시작하여 538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538년은 교권로마가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다니엘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이지요. 그리하여 사단이 그의 “위”를 그리스도교회 안에 세운 것이 이 기간입니다. 교권로마는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교묘하게 혼합했는데, 그것의 합리화가 콘스탄틴의 환상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교회가 높이 들리는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합당합니다.

8. 그런데 안디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답: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인

정하신 것입니다. 이중에 순교자 “안디바”를 특별히 그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안디바는 “안티” 곧 반대, 대적이라는 말과 “파”는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버지를 반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나타냅니다. (1)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밝히는 것처럼 어느 개인이 아닌 당시 순교자 전체에 대한 지칭이다. (2)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순교자를 가리킨다는 설명이지요. 이 설명 중에 둘째 설명은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던 안디바의 순교를 가리키고 첫째는 버가모 교회 시대에 순교자를 가리키는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터툴리안은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에 타 순교했다고 말했으니까 당시의 상태로 사실이겠지요.

9.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안디바가 많았습니까?

답: 당연히 그랬다고 믿습니다. 안디바는 반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이 시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때입니다. 즉 법왕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신자는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 권력을 잡는 일이 될 것을 내다보고 반대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즉 반 법왕을 주장하는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을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의 경험과 모본은 버가모 교회 시대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무수한 자들의 경험과 모본으로 상징하기에 넉넉하지요. 이것이 종교개혁 때에는 개혁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당시로는 많은 안디바들이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초기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차차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용납하면서 순수성에서 떠나고 마침내 콘스탄틴의 출현으로 교회가 높이 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10.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사실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답: 그렇지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만 반면 부분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발람”은 “백성을 정복하라”는 의미로서 그 뜻이 “니콜라당”과 같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은 발람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즉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사람들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22-25장과 31:8,16을 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제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지요. 그러자 그는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하였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벴후2:15이나 유1:11에도 경계하고 있고 유대 역사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버가모가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고, 아마도 교인들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하는 것을 신앙하는 방식으로 생각한 교인들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지요. 이 책망이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이러한 혼합화된 현상은 당연히 책망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이교를 성경의 종교와 혼합하게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적용해 보면, AD 313년에 콘스탄

턴에 의한 기독교의 합법화와 10년 후 그의 회심 시대의 교회 상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이 황제는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연합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점에서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준, 유리하고 우월하기까지 한 위치는 교회를 항상 번영과 인기를 동반하는 유혹의 먹이가 됐지요. 콘스탄틴과 그의 우호적인 정책을 계승한 모든 후계자들 아래서, 교회는 신속하게 정치적인 교회 기관이 되었고 그 이전의 영성을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주장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음 교회 시대로 바통을 이었고 그 영향은 지금도 역사의 현장에 엄연히 존재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변하여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 11. 목사님 시간이 되었네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 내부에 혼란이 생긴 사실을 가르쳐주시면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변하여 바른 믿음의 길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